

하와이 규모 6.5 강진... 관광객 공포

미국 하와이섬 북서쪽 해상에서 15일(현지시간) 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 산사태가 일어나고 건물 파손되는가 하면 호놀룰루가 있는 오푸우 섬 등 하와이주 곳곳에서 전원이 끊기고 전화가不通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15일 리히터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 식당과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은 미국 하와이 키헤이에서 먹을거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노점상 앞에 줄지어 서 있다. /하와이AP=연합뉴스

공포에 사로잡힌 관광객들은 긴급 대피에 나섰고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다.

공포에 사로잡힌 관광객들은 긴급 대피에 나섰고 물과 음식을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다. 지진은 이날 오전 7시7분 하와이주 하와이섬 서쪽 연안 카일루아 코나에서 북북서쪽으로 16km 떨어진 해역에서 일어났으며, 곧이어 규모 5.8의 지진 등 최소한 10차례의 여진이 이어졌다고 미국 지질 조사국이 밝혔다.

태평양쓰나미 센터는 최대 규모가 6.5에 달했다고 밝혔으나, 지질 조사국은 6.3으로 계속했다가 6.6으로 수정 발표했다.

쓰나미 경보 센터는 쓰나미가 발생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으나 하와이주변 바다의 풍량이 거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통신 사정 때문에 피해가 늦게 보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와이 주지사는 건물과 도로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하와이주 전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진에 따른 산사태로 하와이섬의 주요 고속도로가 붕괴되고, 주요 병

도로 곳곳 끊기고 항공기 결항 잇따라 전지역 재해지역 선포...쓰나미는 없어

원에는 상처를 입은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하와이섬에서 가장 큰 하마쿠마 병원은 소방시설의 파손으로 환자들과 직원들을 대피시켰고 코나카미 니터병원도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전기가 끊겨 환자들을 대피시켰다. 호놀룰루와 마우이 공항은 폐쇄된 채 비행기 운항이 중단됐다고 CNN이 전했다.

폭스뉴스는 하와이의 공항들이 비상 전력을 가동해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AP는 착륙은 허가

되고 있으나 전력 부족으로 승객 검색을 못해 이륙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푸우섬에서는 95%의 수요자들에게 전력 공급이 끊겨 사람들이 승강기 안에 갇히는 소동도 발생했다. 진앙지와 가까운 코나의 휴양지들은 휴양객들을 호텔이나 유람선에 그대로 머물도록 권유하는 한편, 이곳을 찾는 선박들에는 다음 기항지를 이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목격자들은 이 지진으로 최소한 2~3차례의 큰 진동이 있었으며 산사태로 바위들이 도로 아래로 구르고, TV가 스탠드에서 떨어졌다고 전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日 핵개발 가능성·北, 베이징올림픽 위협할 수도 "체니, 中 겁줘 北 포기 설득"

美 뉴스위크 최신호 보도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측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닉 케네디 부통령 측근들이 중국측 파트너들에게 일본이 핵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23일 인터넷판에서 또 케네디 부통령 측근들은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7년 북한의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예로 들며, 북한이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위협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주간지는 "미국은 북한 김정일 문제 해결의 최대 희망을 북한의 연료를 70% 정도 공급하는 중국에서 찾고 있다"며 이렇게 전하고 "미국 관리들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마침내 김정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이의 저지에 실패한 미국의 정책을 돌아보는 장문의 기사에서, 뉴스위크는 또 부시 행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이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임기 말 방북 불발 등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잃어버린 기회"라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뉴스위크는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거나 그런 의심을 받는 나라들"로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인도, 투마니아, 이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콩고의 14개국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974년부터 1978년까지 파견됐던 유일한 북한 외교관인 최학근(Choi Hak Gun)이 IAEA 도서관에서 핵기술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IAEA마저도 깨닫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셈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고 이 주간지는 지적했다.

美, 나토식 안보기구 결성 북핵 해결 검토

미국은 북핵문제 해결에 집중해온 6자회담 관련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비슷한 새로운 안보기구 결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15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지도자들과 다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앞서 지난 13일 내셔널 프레슬럽 연설에서 북한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책을 설명하는 가운데 아시아에는 유럽과 달리 나토 같은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한반도 평화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존의식 전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자 구조 창설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中 문화혁명 '박해의 상징' 왕광메이 숨겨

류사오치 前주석 부인... '문혁 4인방' 장칭이 질투

중국에서 문화혁명 당시 온갖 박해를 받고 죽음을 당한 류사오치(劉少奇) 전 국가주석의 부인 왕광메이(王光美)가 폐렴으로 13일 숨졌다고 중화권 언론이 보도했다. 향년 85세.

왕광메이가 남편과 함께 한 삶은 파란만장했다. 그는 1921년 공산혁명 전의 공화정부인 중화민국에서 고위관리를 지낸 아버지와 기업가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워싱턴에 근무한 적이 있는 그의 아버지는 딸의 이름을 그 나라 국명을 따라 지었다. 광메이라는 이름은 '명예로운 집안의 아름다운 소녀'라는 뜻이었다.

문화혁명 직전 중국에서 왕광메이보다 더 세련된 여성은 없었다. 해외근무와 외교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문과 출신으로 완벽한 교육을 받았고 어학에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아름다움은 문혁을 이끈 4인방 가운데 장칭(江青)의 질투심을 부추겼다. 장칭은 그가 외국을 순방할 때 전통복장인 치파오(旗袍)를 충고한대로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비판했다. 왕광메이는 1946년 류사오치와 만나 1948년 결혼했다. 그녀는



1959년 류사오치가 주석직에 오르자 '중국의 제1부인'으로 중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문혁이 일어나자 류사오치는 고문과 구타 등 온갖 박해를 받다가 1969년 허난성 카이펑(開封)의 낚은 지하감옥의 시멘트 바다에서 알몸인 채로 죽었다. /생하이=연합뉴스

美 의회 위안부 결의안 좌절 日 로비 막혀 표결도 안할 듯

과거 위안부 강제동원의 책임을 공식 인정할 것을 일본에 촉구하는 내용의 미국 의회 결의안이 일본측의 로비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미국 일간 보스턴글로브 인터넷판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이 1930-1940년대 한국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은 책임을 묻는 결의안 759호가 지난달 13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일본 정부와 미국 로비스트들의 저지로 의회 통과가 사실상 좌절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한미협회 등 미국 내 결의안 지지단체들은 지난달 "결의안이 사실상 무산됐으며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배고픈 男, 풍만녀를 좋아해~ 英 스와미교수팀, 성인 남성 심리실험

밥 먹기 전과 밥 먹은 뒤 생각이 다르다는 인간심리의 속살은 남성이 느끼는 여성의 성적 매력에도 적용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배고플 때는 풍만한 여성에게, 배부른 상태에서는 날씬한 여성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바이런 스와미 리버풀 대학교 교수와 마틴 토비 뉴캐슬 대학 교수는 성인남성 24명을 대상으로 심리실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5일 샌디헤고 통신이 영국심리학회지에 실린 이들의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연구 결과 배고픈 그룹은 배부른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만한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배고픈 남성은 평균 체중의 여성과 비교할 때도 풍만한 여성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와미 교수는 "남성은 아직도 진화론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번쿠버=연합뉴스

'살 파먹는 박테리아' 초비상! 뉴질랜드 노인환자 3명 연쇄 감염 사망

뉴질랜드에서는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노인 환자 3명이 연쇄적으로 '살 파먹는 박테리아'에 감염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 당국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살 파먹는 박테리아에 의한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도의 비상 경계태세에 들어가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병원은 사실상 격리시켜놓고 있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6일 전했다. 크리스처church에 있는 프린세스 마거릿 병원 측은 지난 13일 A 그룹 연쇄구균의 악성 변종 박테리아에 감염된 세 번째 환자가 숨진 직후 환자들이 입원해 있던 노인 병동을 완전히 격리시켜놓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 당국은 비슷한 박테리아에 의한 피부 감염은 뉴질랜드에서 10~15년 정도 보고 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처럼 연쇄적으로 환자가 발생, 목숨을 잃은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아간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 1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반독과 함께 습득하는 강령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원시 222-4560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의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 내용	개강
주택관리사	최종 마무리 특강 (1차 과목)	11월 1일 (월~금 19:00~22:00)
정보화기초-1	윈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11월 6일 (월~금 19:00~21:00)
정보화기초-2	엑셀,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11월 6일 (월~금 19:00~21:00)
사무자동화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담후 결정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훈련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도청연락처: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65, 777
 ☎ 연세고교: 3, 11, 27, 38, 55, 111, 118
 ☎ 마이일가부담: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2-1088

세계를 단장하였습니다.

10월 20일 OPEN!!

임대사업자 및 직원 모집

2세기 신개념의 호텔사업을 선도하는 도곡온천 관광호텔이 개관을 앞두고 함께 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부서	모집인원	자 격 / 기 타
관리부	각 0명	• 경리 • 비서
지원부	각 0명	• 객실 - Front, 예약, 관측
		• 객실관리 - 룸메이킹
지 원 부	각 0명	• 식음료 - 커피숍, 양식당, 비엔나, 한식당
		• 연회부 - 예약, 연회, 세미나 관리
		• 케서 - 프론트캐셔, 사무나 캐셔
		• 기타

※자격요건(공통사항)

- 고졸 이상 학력수지자
- 해당학과 졸업자 및 관련경력증 수지자 우대
- 신입사원 : 모국어(영어) 구할 것 지 지
- 외국어 가능자 및 자격증 수지자 우대
- 해외여행 실적 기록 없는 자
- ※특정근로 서비스 없음

1. 접수 방법 : 서류접수 및 방문접수
 2.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해당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경력증명서(경력사에 한함)
 3. 오 입 기 간 : 채용시까지
 4. 전형 및 발표 : 서류전형 ▶ 면접
 5. 접 수 처 : 도곡온천관광호텔 ☎(061)375-0025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84번지

임대사업자 매점, 이발소, 세션, 문식점, 한식당, 양식당

도곡온천관광호텔
 ☎ (061)375-0025, 017-623-3774

두배빠른 공무원 합격시스템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대비 **공무원**

법원/검찰직 **한빛공무원학원** 동부경원시 222-4560

개강 11월 1일 (홍/딱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